# 잘된다 못된다 개의치 말고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하세요

☞ 21면에서 계속

력입니다, 입력!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 오는 대로 입력을 해 놓으면 그게 돌아간다.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자동기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이제는 둘이 아니게 내 주인공에, 아들이 아파도 내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맡겨 놓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해 나가서 완벽하게 이게 선다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그랬죠?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죠. 둘이 아닌 까닭에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병을 고쳐주려면, 예를 들자면 특히 정신질환은 더합니다. "네 주인공만이 너를 이끌어 갈 수 있다!" 네 주인공만이 너를 이끌어 갈 수 있다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붙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묘한 생각이 있어요. '에이구! 이거는 무슨 어머니 조상이 붙었고 무슨 누구 영계가 죽었는데 여기 붙어서 이럭하고.' 아, 요런 생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떠나야 할 텐데, 놔야 할 텐데 고런 생각들을 하니 이게 떨어집니까, 네? 뭐가 붙었습니까? 물 한 그릇에다 물방울 하나 넣은 거와 같은데, 항상 그렇게 일러 드려도 그것을 놓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이렇게라도 하겠습니까. 딴 영계가 들어왔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 컵의 물을 다른 컵의 물에 합치면, 그럼 물 한 그릇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체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이 들어와서 딴 영계가 내 집 주인 노릇을 하더라도 내가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모두 한 그릇에 있어요. 같이 먹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 치운다면 상당히 좋을 것을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런데 거기 한데 들어갔으니까 천 명이 들어가도 두 명이 들어가도 한 명이 들어가도 '아이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이렇고 우리 딸이 이렇고 무슨 내가 이렇고 무슨 누구가 이렇고' 이런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왜냐? 여기 물컵에 들어갔으면 벌써 한 그릇이란 말입니다. 한 물이에요. 영에다가 영을 넣으니까 몇이 됩니까, 예? 그냥 영이죠? 허허. 스무 개를 넣으면 또 더 두드러집니까? 그냥 영이죠? 그런데 거기 뭐가 붙었다고 합니까? 참 이상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 십 년이고 몇 년이고 그냥 고통을 받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각각 보십니까? 둘이 아닌 도리를 가르치는데 왜 각각 보시느냐 이겁니다. 요거는 내가 꼭 말을 하고 넘어가겠다고 다짐을 한 거거든요, 하도 애를 쓰니까. 그래서 영과 영이 열 개가 한데 합쳤어도 둘이 아닌 까닭에 아무가 들어왔더라도 주인은 주인 아니겠는가. 그러니 주인공이에요, 그냥. 당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바로 주인공 아닌가. 그러니 '이 몸을 이끌어 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당신밖에 없어.' 뜻으로다가 속의 주인공을 이렇게 탁 잡아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시식을, 제사를, 천도를 수백 번 드리는 것보다 그 한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땀 흘리고 돈 벌어다가 허탈히 쓰는 법을 버리고 돈 쓰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돈 버는 것만 배우지 마시고 쓰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올바르게 써야지 올바르지 않게 쓰는 것은 귀신 놀음이나 한가지고 도깨비장난이나 한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못사는 것도 여러분의 차원 때문입니다, 모르는 차원.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차원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열 명이 들어갔어도 당신이 바로 주인공 아니겠는가!' 하고 주인공만이 속의 뜻을, 말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뜻으로서 주인공만이, 당신만이 이 애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저 만날 적마다 그렇게 해 준다면 또 만나지 않을 때도 그렇고 만나서도 그렇고 먼 데 있으나 가깝게 있으나 똑같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를 달린대도, 탐험을 한대도 둘이 아닌 까닭에 마음은 그저 어디도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산이 높아서 못 넘는 게 아니고 물이 깊어서 못 건너가는 게 아니고, 은산철벽이 두꺼워서 못 뚫는 게 아닙니다. 사방은 툭 터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넉넉하면 심봉이 돌아가는 것이 녹이 안 슬고 착착 돌아갑니다, 기름이 주어지니까. 넉넉한 마음은 기름을 주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심봉에 기름을 주는 거와 같아요. 그리고 넉넉지 못한 사람, 소견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은 이게 자꾸 돌리질 못하기 때문에 녹이 슬고요. 그리고 뻑뻑해요. 잘 돌아가질 않아요.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도 기계를 잘 아시죠? 만약에 차를 끌고 다니는 데도 바퀴가 영 굴러가지 않아서 그냥 두면은 그 중심인 심봉이 잘 안 굴러가게 되죠. 양면으로 딱 조여 놓고선 이게 그냥 돌아가도 이 중심 심봉은 통 움죽거리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것들만 돌아가죠. 바깥에 붙어 있는 그 다섯 가지의 수레바퀴가, 즉 불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물바퀴라고 해도 좋고 불바퀴라고 해도 좋고 보통 그런 수레바퀴라고 해도 좋죠. 그렇게 돌아가는 이 자체, 바로 그것을 바깥에 서서 돌릴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걸 그렇게 입력을 들어오는 대로 용도대로 잘된 건 감사하게 입력을 해 놓고 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도 거기서 한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해 봐.' 하고 거기다 입력을 해 놓으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당당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 꿈이 신경 쓰여요

**질문** 제가 요즘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꿈에서도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좋게 돌려놓으려고 하는데도 기분 나쁜 꿈을 꾸면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제가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중심 잘 잡고 갈 수 있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꿈도 꿈이고 현재 생시도 꿈입니다. 저 달이 말입니다, 강에 비쳤다 이겁니다. 강에 비쳤을 때에 그 강에 비친 달은 하늘에 있는 달과 둘이 아니면서 그림자예요. 내가 지금 몸뚱이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내가 마음으로 요렇게 생겼고 내가 요렇게 있다 하는 걸 알고 그것이 바로 잠재의식 컴퓨터에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는 항상 그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서 하루 온종일 살다가 들어왔는데도 한 시간도 안 됐더래요, 온종일 살았는데. 꿈에서는 하루 온종일 살았답니다. 그랬는데 저녁에 밥 얼른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깨 보니까는 한 시간밖에 안 됐더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마음으로 자기 모습을 지어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돌아다니는 일은 지금 육신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모습 없는 모습을 가지고 다니는 거하고는 빠르기가 여간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서도 없으니까, 진실은. 그러니 이 육신을 끌고 하루 종일 산 거하고 꿈에 한 시간을 산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꿈을 꾼다고 하는 것도 모두, 생시나 꿈이나 자기의 모습이 다니는 거니까 자기에다 놔라 이겁니다. 진짜 씨가 있기 때문에 콩나무가 나고 잎과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거기다가 그렇게, 놓을 데 없는 데다가 놓을 게 없는 것을 놔라." 하는데 진실히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생시에 만나면 일가친척이고 누구고 간에, 애들의 친구든지 내 친구든지 또는 어떤 회사든지 상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천차만별로 살아나가는 데 거기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사람마다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각각 보니까 상대가 생기죠? 그러니깐 업보를 짓는 겁니다, 상대로 보니까. 우리가 여여하게 살면서도 상대를 마음으로는 둘로 보지 않아야 그게 업보가 되지 않는데, 업보에 끄달리지도 않을 거고 말입니다. 현실에 끄달리지 않는다면 꿈에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고 이것도 꿈이요 저것도 꿈이라면, 꿈에 또 끄달리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진짜의 마음 그 자체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 자꾸 짊어지고 갈 바가 뭐 있습니까.
> 몸뚱이 하나 올라가는 것도 무거운데
> 다 놓고 올라가시라 이겁니다.

그런데 억겁을 거쳐오면서 별의별 모습을 다 가지고 자기가 살던 그 습성이 모습과 함께 자기한테 자꾸 나타나는 거거든요. 짐승이 와서 나한테 덤볐다, 또는 뱀이 나한테 덤볐다, 꽃이 화창하게 핀 걸 봤다, 또 무슨 도둑이 들었다, 강도가 들었다, 강도가 나를 죽이러 쫓아다닌다 이런 문제들이 여간 많지 않죠. 또 꿈에는 훨훨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구요. 그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죠. 콩 심어서 콩나무가 났으니까 그 작년 콩은 없어진 거죠, 아주. 없는 거죠. 그런데 미생물이 있기 이전부터, 또 미생물이 생겨서 오기까지 그것이 수백 수천 년, 수만 년 그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을 거쳐오면서 여기까지 왔어도 온 사이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억겁을 거쳐 나온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런데 생각으로서 살던 그 습이 남았단 얘깁니다. 짐승으로 다니던 습과 천차만별로 거쳐 온 그 습이 남았단 얘깁니다.

살아온 것이 자기 마음의 컴퓨터에 쟁여 있으니까 그것이 때로는 습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자꾸 인과응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오는 대로 그냥 주인공에 모두가 둘이 아니게 놓았을 때에는 다 녹아 버립니다. 인연법에 의해서 그 인과응보가 다 녹아 버리고 유전성이 다 녹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습성을 기르지 않았더라면, 기르려고 그래서 기르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날까지 오면서 습성을 놓고 왔더라면, 지금 현재에 놓고 가는 건데, 그대로 여여하게 놓고 가는 것을 홀연히 깨달았다면, 억겁을 거쳐 오면서 이날까지 그 습을, 남은 것도 없고 앞으로 또 쟁여질 것도 없고 전자에 쟁여진 것도 없고 이랬을 텐데 아니, 마음으로 지어서 습에 의해서 그냥 착착 쟁여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면서 어머니 만날 때 아버지 만날 때, 이런 일 할 때 저런 일 할 때 나투어서 돌아가듯이 그런 업보도 인연 따라서 올 때에, 그렇게 자꾸자꾸 나투면서 지은 것이 진화…, 즉 '발이 없어. 발이 없으니 어떻게 되지?', '아니, 내가 네 발로 걸어 다니기보다 서서 다니는 게 편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것도 진화력이거든. 그 생각에 의해서 진화되는 거지 몸뚱이로 다니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여러분도 다 꽁지 떨어진 자리가 있죠. 방뎅이 좀 보라구요, 꽁지 떨어진 자리가 없나.

이 세상의 모두가 다 그렇게 거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습을 마저 벗기 위해서, 끄달리지 않고 마저 벗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큰 고(苦)든지 작은 고든지 고는 고니까. 만약에 깨달으면 고가 아니지만 깨닫지 못하면 고예요. 항상 고예요. '나는 뭐, 고가 될 것도 없어. 그저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기고 놓고 사니까.'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진짜로 깨달아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속상한 일이고 자꾸 끄달리죠.

그런데 한 소식을 얻은 사람들은 금방 일어났다가도 금방 가라앉습니다. 금방 일어났다 금방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없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깨달은 거하고 한 소식, 뭐, 한 소식이라는 게 두 소식이 있고 세 소식이 있어서 '한 소식'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과정도 우리가 애 적이 있고 젊을 적이 있고 늙을 적이 있듯이, 한 몸이 그렇게 자꾸 변해서 가듯이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도 두 소식이 한 소식이고 세 소식이 한 소식이 돼야 됩니다. 그 한 소식마저도 없어서 내세울 게 없어야 열반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계단 없는 계단을 걸어야 하고 걸을 게 없는 길을, 발 없는 발로다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